

Care Together Cure Together



고려대려요양병원 홈페이지

고려소식지

2025 Spring VOL. 36

Since 2019

개원 6주년



봄맞이 꽃꽂이 관련기사 16면



재활 · 항암 · 투석 · 노인요양
고려대려요양병원
GORYO DAERYEON MEDICAL CARE CENTER



프리미엄 요양원
고려시니어케어
GORYO SENIOR CARE DALJEON TOWN
달진티운

대표전화 054 - 241 - 1011
홈페이지 www.goryomcc.com

대표전화 054 - 262 - 2022
홈페이지 www.goryoseniorcare.com

제2017-36호

발행인 | 박영희

편집 | 전략실

발행처 |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련요양병원

대표전화 | 054) 241-1011

주소 | 376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홈페이지 | <http://www.goryomcc.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ryomcc>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련요양병원 고려소식지는 고려대련요양병원,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고객에게 드리는 다양한 의료정보와 환우들의 병원소식을 전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려소식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 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의료

- 04 **의학칼럼** | ‘오십견’ 그 증상과 치료방법은?
- 06 **[특별기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요양병원의 미래
- 08 **의료정보** | 손닥터의 투석실 이야기
- 10 **암 식이** |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한 끼 식사
- 11 **삶에 정보를 더하다** | 포항시 다자녀 가정 혜택



고러시니어케어 달전타운

- 12 **프로그램** | 설 맞이
| 정월 대보름 행사 실시 | 인사발령
- 14 **달전타운 소식** | 낙상예방 캠페인 실시
| 영양보호사 실습 수기



나눔

- 16 **봄 맞이 행복 빵 나눔** | 암 병동 힐링 프로그램
- 17 **암 병동 봄소풍** | 2025년 QI활동
- 18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 | 김숙자 대외협력이사
- 20 **개원 6주년 기념** | 산불피해지역 돕기
- 21 **신규직원교육** | 웰컴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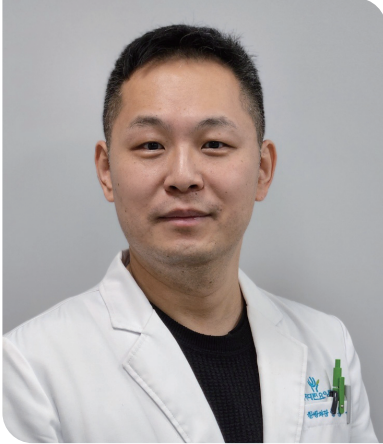


병원소식

- 22 **복합 휴게공간** 오픈
- 23 **기타 병원소식**
- 24 **친절직원 소개**
- 25 **신규직원 소개**
- 26 **진료부 소개**
- 27 **요양병원 입원대상 안내**
- 28 **외래진료 시간표**



‘오십견’ 그 증상과 치료방법은?



고려대연료양병원

양 정 훈 한방과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세양요양병원 한방과장
- 논산시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분야

-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 내과
-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오십견(五十肩)이란 글자 그대로 ‘50세의 어깨’를 의미한다. 보통 면역작용, 혈액순환기능, 운동량 등이 떨어지는 50대 전후로 발병한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오십견은 동결견이라고도 불리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의 만성염증, 비후, 섬유화로 인해 관절막과 상완골이 유착되면서 유발되는 통증이 특징적이다. 노화, 외상, 운동부족과 같이 오십견의 원인은 다양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20~40대 젊은층에게도 나타나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파킨슨병,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으면 발병률이 높다. 과도한 어깨운동이나 장시간 어깨사용,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혹은 추운 겨울철 신체 활동 위축도 발병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오십견을 ‘어혈과 담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곧,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불필요한 이물질들이 많으며, 근육이 굳는 등 결국 노화가 왔기 때문에 어깨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긴다.

오십견 초기에는 병이란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발병 2개월 차 즈음 ‘옷을 입고 벗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발병 4개월 차 즈음 ‘세수나 양치질이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깨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리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심할 경우 ‘앞으로 나란히’를 못할 만큼 팔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발병을 알게 되면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관리 및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 ▶ 어깨 위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 ▶ 어깨가 뻣뻣하고 굳어 있으며,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 ▶ 어깨를 360도 회전하기 어렵다.
- ▶ 어깨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통증이 온다.
- ▶ 뒷짐을 질 때 어깨가 아프다.
- ▶ 누워있을 때도 어깨통증이 있다.
- ▶ 밤에는 어깨통증이 더욱 심해져 깊이 잠들지 못한다.
- ▶ 높은 곳이나 먼 곳의 물건을 집기가 힘들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오십견은 아니다. 오십견 외에 회전근개 손상 및 파열, 어깨충돌증후군, 석회화 건염 등에서도 어깨통증이 발생한다. ‘만세 자세’를 취해보면 오십견과 다른 어깨통증 질환들을 구분할 수 있다.

‘어깨근육을 강화하고 관절가동범위의 회복’

두 팔을 스스로 머리위로 들어올릴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들어올려지지 않으면 오십견이라고 판단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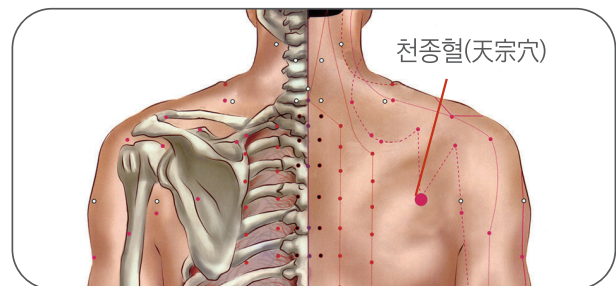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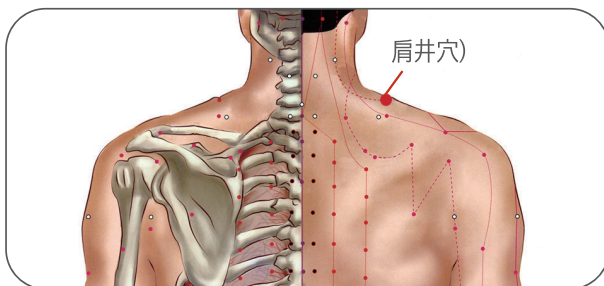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은 2~3년이 지나면 자연치유에 이른다. 하지만, 3년 이상 증상이 이어지기도 하며, 10%의 사례에서는 후유증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심한 어깨통증을 참아가며 자연치유되기를 기다리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적합한 관리와 치료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증상완화에 도움을 준다. 어깨근육을 강화하고 어깨관절의 가동범위(ROM)를 정상화 해서 평상시 오십견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 단, 관절가동범위 회복을 위한 운동 혹은 스트레칭을 할 때는 스스로 움직여지는 한계로부터 서서히, 조금씩 가동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래 소개 하는 세가지 방법을 따라해 보자.

높은 곳에 팔을 걸친 채로 몸을 낮추기 : 높은 책상 선반에 손을 얹은 후 몸은 앉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면 어깨부위 스트레칭이 된다.

허리 뒤로 합장하기 : 양팔을 허리 뒤로 보낸 뒤, 두 손바닥을 맞댄으로써 스트레칭 효과를 유도한다.

옆드려서 팔을 움직이기 : 옆드린 다음 바닥을 쓸 듯이 팔을 움직이는 동작은 어깨의 가동성 회복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 35~40도 사이의 어깨부위 온찜질은 혈류량 증가로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어깨 통증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오십견에 대한 한의학 침구치료에서는 견정혈과 천종혈을 중심으로 다른 혈위들을 배합하여 자침 및 구술을 시행한다. 고개를 숙였을 때 목뒤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와 어깨 끝을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의 중간지점인 견정혈(肩井穴), 견갑골의 중앙에 위치한 천종혈(天宗穴)을 주기적으로 지압해 준다면 오십견 증상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림 출처 <https://www.xjlz365.com/>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요양병원의 미래



고려대연료양병원

이준엽 상임이사

-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대표
-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상임이사
- (前)고려달전요양병원 기획실장
- (前) KPMG BCS-HEALTHCARE CONSULTANT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 석사/박사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
- 인디애나대학교(미국) 의료경영학 학사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의료/요양서비스가 각각 운영되어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별도로 받아 요양원에 입소하셔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많았고, 효율성 또한 현저히 떨어졌다. 더군다나 예나 지금이나 요양병원(의료기관)과 요양원(시설)에 대한 차이를 모르는 보호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을 재정하여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정된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Living In Place)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노쇠 여부와 복합 욕구를 사전 평가 및 조사하여 노쇠한 노인 등이 시군구, 건보공단 등에 직접 통합판정을 신청하여 의료, 요양 필요도를 통합판정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 전 평가 지표 및 통합 판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하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판정 조사는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에 노쇠한 노인에 맞는 서비스군을 매칭한다는 것이다.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 의료 필요도가 높지만 요양 필요도가 낮으면 전문의료기관, 의료 필요도가 낮고,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장기요양시설, 의료/요양필요도 모두가 낮으면 지역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표. 욕구별 서비스 대상자 기준).

< 욕구별 서비스 대상자 기준 >

구분	요양 필요도 高	요양 필요도 低
의료 필요도 高	요양병원	(요양)병원
의료 필요도 低	장기요양 (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 장기요양 진입 전 예방적 돌봄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인하여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노쇠한 노인의 요양병원의 입원이 가급적 늦어지고, 치료가 가능한 노쇠 환자는 조기 퇴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요양병원의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할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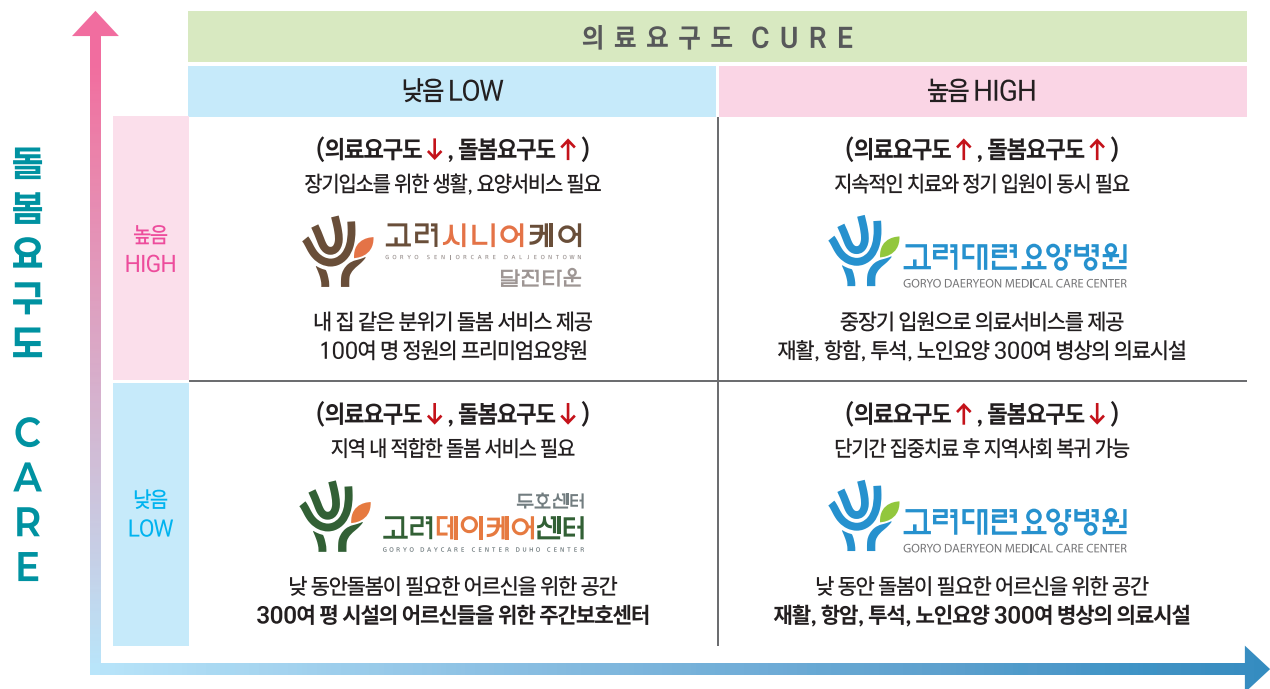
요양병원은 노인 그리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와 신체적, 정신적, 돌봄을 장기적(Long-Term Care)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필수 의료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도가 다양해지면서 요양병원도 단순 노인요양이 아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요양병원도 적극적인 태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중심(Patient-Centered)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요양병원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고려대연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원 이래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요양 뿐 아니라 재활, 향암, 투석,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화된 진료영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문화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중증환자를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노쇠 노인의 노쇠 과정에 따라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있기에 본원에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넘어 돌봄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맞는 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 받거나 전원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모델이 앞으로 나아갈 노인의료복지의 전달체계이고 고려대연요양병원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의료기관 및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의료복지산업이 더욱 더 성장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할 것이다.

의료/돌봄 요구도에 따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도



손닥터의 투석실 이야기

투석을 2번만 하면 안되나요?



혈액투석은 보통 일주일에 3번, 회당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토 반이 있습니다.
 월/수/금 반은 주말에 토, 일 2일을 연달아 쉬게되고,
 화/목/토 반은 주말에 일, 월 2일을 연달아 쉬게되는 구조입니다.

투석이란?

콩팥을 대신해 몸 밖에서 기계를 통해 노폐물과 체내의 잔여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투석은 24시간 내내 투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일 4시간씩 투석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위 방식대로 주3회, 4시간씩 투석을 하고 있으나, 투석실에서 드물게 주 2회, 4시간 투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많은 환자분께서 "저도 2번만 투석하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이 섞인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PART 01 누가 주 2회 투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대부분은 주 3회 투석을 하는데, 소수의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만 왜 주 2회 투석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본인이 투석 횟수를 줄이고 싶다면,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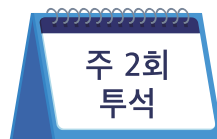
- Q 투석 간 체중 증가량이 적은가?
(다음 투석때 체중이 늘어오는 정도, 건체중과의 차이)
- Q 소변량이 하루 1L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나오는가?
- Q 칼륨 조절, 인 조절이 잘 되고 있어 매달 정기검사때마다 별 문제없이 지나가는가?

위 답변에 하나라도 "아니요"가 나온다면, 주 2회 투석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 투석에는 노폐물 제거와 잔여 수분 제거가 중요합니다. 투석을 하긴해야하지만, 콩팥에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면, 소변도 나오고 인조절, 칼륨 조절도 다른 투석환자에 비해서 수월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비로소 주 2회 투석을 하는 것입니다. (주 2회 투석만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보통은



만일 소변량이 적어 음식을 섭취하는 대로 체중이 되어 버린다면, 월요일 투석 후 토요일에 다시 투석 하러 오실 때 (중간에 4일을 투석 없이 지내게 됨...) **기준 체중 대비 하여 체중이 너무 많이 들어와 도저히 4시간 동안 제거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되고,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하루 소변량이 충분하더라도 노폐물 제거가 안되면 칼륨, 인을 비롯해 여러가지 요독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석을 함에도 요독 증상이 생기거나 칼륨, 인 조절이 불량하여**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요독 증상에는 식욕부진, 가려움, 불면 등 이유가 불명확한 여러가지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PART 02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주 2회 투석을 하시다가 다시 3회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 남아있던 콩팥기능이 시간이 흘러서 점점 소진되어 결국 주 3회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갈 수록 노화가 일어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점점 줄어듭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

- ▶ 하루소변량이 줄어 투석간 체중증가량이 많아질 경우
- ▶ 하루 소변량이 줄어들 경우
- ▶ 투석 적절도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 ▶ 칼륨, 인 등 전해질이 조절되지 않거나 요독증상이 나타날 경우

에 주 3회 투석으로 증량하게 됩니다.

PART 03 주 2회 투석이 가능한 임상상황

사실 제 경험상, 혈압이나 당뇨,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점점 신장기능이 떨어지고, 약으로 버티다 버티다 결국 투석까지 하시게된 경우에는 이렇게 주 2회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미 투석할 시점에는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콩팥 세포를 다시 되살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 펌프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펌프가 나쁘면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들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중 콩팥이 유독 민감한데요. 그래서 심장이 나쁘면 콩팥도 나빠집니다. 이 경우 심장을 좋게 만들면 해결됩니다. 안타깝게도 약물치료나 몇가지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심장을 새로 이식하는 것외에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체내의 수분을 줄여주면 심장 기능이 일부 회복되기도 합니다. 수분을 줄여주는 출구가 콩팥인데, 이 콩팥이 섰다운 되면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분은 쌓이고 심장은 더 힘들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때 방법은 투석을 하는 것입니다. **투석으로 수분을 제거해주면, 심장 입장에서는 펌프질이 훨씬 가벼워지고 강해집니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콩팥으로 혈액공급이 다시 활발해지면, 기절해있던 콩팥 세포들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변량도 다시 나오면서 투석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상황으로는 패혈증 등으로 몸의 염증반응이 극심하여 일시적으로 콩팥에 장기 부전이 왔고, 일시적으로 투석을 했다가 염증이 호전되면서 다시 콩팥이 살아나 투석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수면제) 후에 신부전이 왔다가 일시적으로 투석 후에 다시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한 끼 식사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겪게 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무언가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생기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가득 찬 느낌 때문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

오징어와 견과류 등,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거칠고 딱딱한 음식보다는 가급적 소화가 쉽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여 소량 씹 자주 섭취한다. 세 끼 식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사 사이사이 수시로 간식을 먹도록 하며, 적은 양을 먹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먹도록 한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을 경우 소화 속도가 더욱 느려져서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 누룽지, 크래커, 떡, 빵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소화장애가 있을 때는 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죽은 영양 밀도가 낮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영양 불량의 위험성이 커진다.

만약 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식품을 선택하고 소고기호박조림, 생선채소찜과 같은 단백질 반찬과 숙주오이나물과 같은 채소 반찬을 고루 섭취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소고기 장국죽, 닭죽, 전복죽, 소고기버섯죽 등 영양가 높은 일품 죽으로 영양 밀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양밀도가 높은 일품요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경영지원실 영양팀장 / 배 소 영

두부명란죽



만드는 방법

- ① 쌀은 씻어서 20분 정도 불린다.
- ② 두부는 작게 깍둑썰고, 명란은 곱게 다진다.
- ③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볶다가 명란을 넣어 볶은 후 물을 붓고 끓인다.
- ④ 쌀알이 푹 퍼지면 두부를 넣고 끓여 소금으로 간한다.

재료

쌀 60g, 두부 20g, 명란 30g, 물 320ml, 참기름, 소금 약간씩

양송이버섯감자스프



만드는 방법

- ① 양송이버섯은 모양을 살려 납작하게 썰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납작하게 썰고, 양파는 채썬다.
- ② 냄비에 감자, 닭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감자가 익으면 양송이버섯, 양파를 넣어 끓인다.
- ③ ②를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간 후 다시 냄비에 넣고 우유를 붓고 끓인다. 소금으로 간한다.

재료

양송이버섯 50g, 감자 50g, 양파 20g, 닭국물 100ml, 우유 50ml, 소금 1g

2025년 부터 달라진

포항시 다자녀 가정 혜택 총정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3년 8월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되어 두 자녀 가정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 가정 혜택은 각 시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포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혜택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다자녀 가정 주요혜택]

유형	내 용	자녀 수		문의처
		3자녀 이상	2자녀	
임신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	○	여성가족과 054-270-3033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	여성가족과 054-270-3033
일반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 가맹업체 이용시 5~15% 적립 또는 할인	○	○	농협 전 영업점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10세 미만 자녀에 한함. 1명당 매월 40L 기준 지급	○		자원순환과 054-270-3158
문화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감면 :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감면(5,000원 → 3,000원)	○		문화예술과 054-270-5484
	아이누리 키즈카페 이용요금 할인 : 이용요금 50% 할인	○		여성가족과 054-270-3033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10톤(9,260원)	○		상하수도행정과 054-270-5339
	전기요금 감면 : 월 1만 6천원 한도	○		도시가스 고객센터 1599-0009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		한국전력지사 123



고려시니어케어 달진타운

‘달진타운’에 설이 찾아왔습니다



고려시니어케어는 지난 1월 24일 설 연휴기간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규칙을 단순화 하고 큰 윷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윷놀이에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열심히 던지며 응원하다 보니 젊은 시절 가족들과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소환되어 가슴 찡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평소 어르신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준비한 명절 음식 만들기를 진행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명절분위기 난다며 좋아해 주셔서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려시니어케어(달진타운) 시설장 / 차 동 찬

정월 대보름 「부럼깨기」

정월 대보름은 정월(1월)의 보름날을 가리키는 말로,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한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달전타운은 음력 1월 15일(양력 2월12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부럼깨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럼깨기는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호두·은행·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 다른 말로 '부스럼(또는 부럼)깨물기'라고도 하고 '부럼먹는다'고도 합니다.

이날, 어르신들께서 직접 손망치로 호두, 땅콩을 깨서 드시며 “고소하고 맛있는 거 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해 주시어 직원들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견과류 많이 드시고 한해 동안 부스럼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사무국장 / 김 준 영

인사발령(임명장 수여)



주해동
관리과장 → 총무과장

정덕분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팀장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은 지난 3월 10일 승진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준엽 대표는 이날, 주해동 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그리고 정덕분 물리치료사를 물리치료팀장으로 인사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석한 임직원들에게는 지난 근심, 걱정은 모두 버리고 2025년 을사년에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시설장 / 차 동 찬



낙상예방 캠페인 실시 “낙상, 예방이 최선입니다.”

고려시니어케어는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낙상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이 낙상으로 인해 골절을 입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감소, 간병과 의료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부담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후, 회복된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본원은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란 생각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낙상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침상에 낙상예방 안전바를 설치하고 침상 콜 벨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낙상과 관련된 시설투자에도 더욱 집중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증가시키며,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총괄간호팀장 / 손희정



달전타운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생 김순례입니다.

저는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40시간을 고려시니어(달전타운)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원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긴 했지만 막상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3층 들국화 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업무뿐 만 아니라 고려시니어케어의 크고 작은 일상생활을 도우면서 미래의 요양보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배우고, 요양보호사의 자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길게만 느껴졌던 실습을 마치려고 하니 너무도 빨리 지나간 시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에서의 경험은 제가 배우고자 했던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중 많은 기회가 주어져 돌발적인 상황도 겪어보고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론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이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잘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해 주신 고려시니어케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모습도 예쁘게 봐주신 어르신들께 마음 열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려시니어케어 모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포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생 / 김 순 례



봄 맛이 행복 빵 나눔

이제 이맘때면 직원들이나 환우분들은 “빵 구울 때 안 됐는교?” 하며 물어보십니다.

본원은 분기마다 행복 빵 나눔 행사를 실시합니다. 환우분들이 드시는 음식이라 위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이번 메뉴는 ‘메이플피칸’ 입니다. 지금까지 구웠던 빵 중에 가장 완성도가 좋고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번에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도 따끈한 빵을 나눌 동료들과 작은 나눔에도 감사하는 환우들이 있어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경영지원실 시설관리과 / 이 미 정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본원 사회복지실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암 병동 환우들을 위한 꽃바구니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플로리스트)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시작 전부터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노란 프리지어와 안개꽃 그리고 유칼립투스 하나씩 장식해 가며 각자의 솜씨를 뽐내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완성된 작품은 신기할 정도로 모양과 개성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의 꽃은 마치 동양란처럼 기품이 있었고, 어떤 분은 아주 귀여운 꽃밭에 온 것 같았지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 모두들 편하게 즐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즐겁게 참여해 주신 환우분들과 세심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즌에는 어떤 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그리고 꽃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은 환우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3, 6, 9, 12월 이렇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 김 정 예

봄 맞으러 ‘오어지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오어사 사찰



티타임



점심식사

포항 운제산의 신라 천년고찰 오어사와 오어 저수지를 걷는 명품 둘레길 ‘오어지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오어사를 출발하여 원효교 - 남생이 전망대 - 관어정 - 망운정 - 인도교 - 저수지뚝길 - 오어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오어사로 돌아오는 약 7km 길이로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소풍 당일 일기를 걱정하였는데, 다행히도 햇살 머금은 봄 내음을 맡으며 목적지인 오어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꽃놀이 소풍으로는 조금 이른 시기이지만 차량 정체와 인파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트래킹으로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오늘의 메뉴인

오리백숙을 맛있게 먹고 인근 카페로 이동하여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에서 노래를 들으며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착 후에도 여흥이 식지 않아 원내 노래방 기기 앞에서 한참을 즐긴 뒤 저녁 식사 무렵 예약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의 불안감들을 잠시나마 훌훌 벗어던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병원생활에 잠시라도 기분전환이 되셨기를 바라며 우리 환우분들 늘 응원합니다.

간호부 3병동 팀장 / 정 봉 규

2025년 QI활동 ‘근접오류 보고 활성화’



본원 *QI실은 2025년 QI활동 주제로 ‘근접오류 보고 활성화’로 정하고 직원 식당과 로비층 입구에 베너 현수막과 의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의견함에는 직원들이 근무중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의 징후들을 접수받고 발빠르게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은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작은 사고가 1번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징후들을 발견하여 한 번의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QI실 간호사 / 박 연 미

*QI는 Quality Improvement의 약자로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의료 질 향상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

김숙자

고려대련요양병원
대외협력이사

첫 번째

인연



안녕하십니까?

고려대련요양병원 대외협력이사 김숙자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을 사랑해 주시고 본원에서 발행하는 고려소식지를 챙겨봐 주시는 애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고려소식지 36호부터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이란 코너를 만들어 고려산부인과에서부터 고려대련요양병원까지 본원과 인연이 깊은 분들을 선정하여 인물 소개를 하려 합니다. 그 첫 인물에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한 평범한 가정에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이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집안에 유독 간호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흰색 가운과 머리에 올렸던 캡이 그렇게 예뻐 보였어요. 실제로는 너무 힘이 드는 직종인데 말입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무원(보건진료소장)으로 일을 했고, 그때 인연으로 고려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소장을 하며, 짬짬이 영덕, 울진중고등학교 성교육 강의, 포항시(영일군) 농협 주부대학 여성 클리닉 및 자녀 성교육, 경산시, 경주시, 영덕군,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호흡법, 산전체조 강의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교육관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조산소(분만, 산파)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에 대한 학구욕이 생겨 노인복지학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이 직원 또는 본원과 관련된 분들을 소개하고 고려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소개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고려산부인과와 박영희 이사장님과의 인연은 보건진료소장을 하던, 그러니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요. 직접 고려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일들과 추억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뇌리를 스쳐 지납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고려달전요양병원에 근무할 때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연중 가장

큰 행사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임직원을 포함 500명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넓은 잔디마당에서 낭만적인 음악공연에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으며, 뭐라고 표현 못 할 가슴 벅찬 기분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근무하며 가장 좋은 기억은 고려달전요양병원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긴 준비 끝에 고려대련요양병원을 오픈하던 날인 듯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억이며, 또한 이 큰 병원에 환자를 빨리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많았던 기억입니다.

간호사의 길 4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직장이나 개인의 계획을 물어보신다면, 고려대련요양병원,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이 지금과 같이 계속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후 여건이 허락 한다면 고려주간보호센터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은 어떤 기억들로 채워져 있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일한 기억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회가 우연찮게 찾아와 잊고 살았던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고, 꼭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 결혼 전 병원 다닐 때 아무 걱정 없이 동료들과 하하 호호 하며 수다 떨 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도 그립네요! 가장 즐거웠고 그리웠던 시간인 듯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이요. 여러분도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콩가루를 넣어 직접 손으로 밀어서 만드는 칼국수입니다. 근데 일이 많고 번거로워서 자주 해 먹지는 못하지만요.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은 시골에 가서 밭을 관리하고 꽃을 키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소박한 삶인가요?

저는 40년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듯 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한 길만 가자.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자.’ 돌아보니 간호사란 직업이 힘든 날도 있었지만 보람되고 즐거운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고 행복했다 생각합니다.

저와 박영희 이사장님과의 인연이 40년 정도되는 데, 그 긴 시간 중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10년 전 제가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왔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싸주고 챙겨주셔서 다시 용기 내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고 지금도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보답 하는 길이 많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 남겨봅니다.

박진숙님, 우서진님(조산소 시절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 김현숙님, 서울해님 간호사 40년 세월 속에서 울고 웃고, 많은 사연과 추억을 함께한 동료들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영원히 추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려대련요양병원과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를 아끼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개원 6주년



▲ 2월 친절직원



▲ 기념품 증정

고려대련요양병원이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 3월 10일 전체부서장회의 자리를 빌려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박영희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2014년에 착공하여, 2019년 오픈하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어려 변수들로 개원이 늦어졌으며, 채 1년도 못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임직원들이 잘 버티어 주어 지금의 탄탄한 기반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외부에서도 인정하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기념사를 통하여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을 위해 제작된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매월 선정 되는 친절직원도에게도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최고의 치유경험을 선사 하는 병원으로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총무과장 / 황 욱



산불피해지역 돕기

본원은 지난 4월 10일 포항시청을 찾아, 의성발 영덕 일대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련요양병원 박영희 이사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라며 성금 기탁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차 신규직원교육 실시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지난 4월 9일 2025년 2차 신규직원 입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입문교육은 두 달에 한 번 실시되며,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한 7개의 법정교육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7개의 필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날, 본원에서는 신입직원들께 조금 특별한 선물을 전해 드렸습니다.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을 선별

하여 웰컴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웰컴키트에는 이사장님의 입사 축하 카드와 함께 치약 칫솔 세트, 텀블러, 메모장, 삼색 볼펜 모두 고려대련요양병원 심벌마크를 넣어 특별 제작하였습니다.

본원 임직원 모두가 2025년 2차 신규직원교육을 받은 열두 분의 희망찬 첫 걸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복합 휴게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모습



내부모습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지난 3월 14일 병원 로비층 입구에 복합 휴게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면회공간과 원무과 업무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상 통화 또는 입원환자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층 입구에 별도의 복합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환우분들과 내방객(외래, 면회)들의 편의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편의시설’을 한곳으로 모았습니다



- ① 원내 매점 이전
- ② 간식 자동판매기
- ③ 즉석라면 조리기
- ④ 추억의 오락기



복합 휴게공간 내부는 카페(화담), 매점, 간식 자동판매기, 즉석라면조리기(한강라면), 추억의 오락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존 매점은 병원 내부에 있어 감염(코로나19, 독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복합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에 우리 환우들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고려대련요양병원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도록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 김 영 진

설 맞이 민속놀이(투호, 고리던지기) 실시



1월 24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본원에서는 입원 중이신 환우들과 즐거운 민속놀이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투호와 고리던지를 통하여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평소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간식을 준비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3월 6일

정화조 청소 실시

법적기준 연 1회



4월 9일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

자체점검 연 4회



2월 12일

1차 신규직원교육 실시

자체교육 연 6회



4월 9일

2차 신규직원 교육 실시

자체교육 연 6회





고려대련요양병원
GORYO DAERYEON MEDICAL CARE CENTER

이달의 친절직원 수상자 소개

1월



간호부 4병동
배 성 희 간호사

2월



간호부 4병동
김 선 향 간호사

3월



경영지원실 영양팀
서 다 슬 영양사

고려대련요양병원은 매달 한 명의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친절직원 게시판 소개

영양팀 강성복 선생님

항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환자의 건강에 좋은 반찬을 잘 챙겨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4병동 이미자 선생님

입원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자신의 몸을 관리하듯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살펴 주시고, 간호부 동료들과의 업무도 솔선수범하려 노력합니다.

영양팀 조영미 선생님

항상 밝은 웃음으로 환우분들을 챙기시며 따뜻한 미소로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여사님을 친절직원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총무과 황욱 선생님

보호자분들께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인공신장센터 장현정 선생님

참 잘 해주세요. 매사에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어서 칭찬합니다.

사회복지팀 김정예 선생님

저는 216호 환자입니다. 지난번 욕창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한 구입 경로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을 주시어 고맙고 칭찬합니다.

* 이달의 친절직원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칭찬카드를 받은 직원을 소개합니다.

+ 신규직원 소개 +



1병동

이미라 간호조무사



2병동

황선재 간호사



4병동

강민경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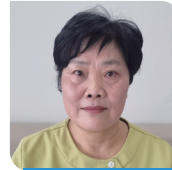
4병동

김문숙 간호조무사



4병동

이현숙 간호조무사



4병동

전은자 간호조무사



집중치료실

김여주 간호사



영양팀

박시연 조리원



영양팀

서정옥 조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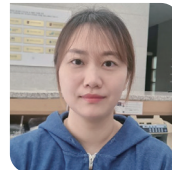
영양팀

서향숙 조리원



영양팀

유현미 조리원



원무과

이현혜 의무기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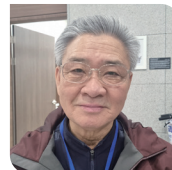
시설관리과

김순천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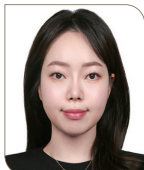
시설관리과

윤승구 사원



시설관리과

김용수 경비



영양팀

배주원 영양사



요양팀

김현숙 조리원



요양팀

조복성 조리원



요양팀

유승희 요양보호사



요양팀

장정숙 요양보호사



요양팀

전계연 요양보호사



요양팀

전미영 요양보호사



요양팀

최춘희 요양보호사



요양팀

허정화 요양보호사



요양팀

박문수 요양보호사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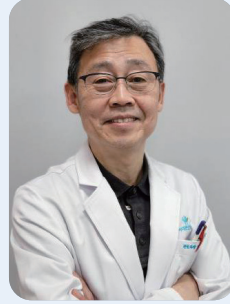


안광욱 병원장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대구 효성병원 소아병원 병원장

진료분야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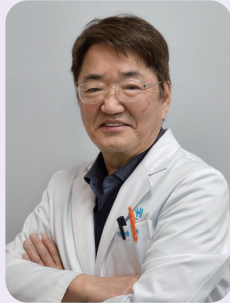


임종우 진료과장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공의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박사 (신장학)
- 경북 김천제일병원 내과과장
- 경북 구미 차병원 내과 주임과장
- 임종우내과의원 원장

진료분야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예재명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신세계산부인과 원장
- 고려달전요양병원 진료과장
- 영덕효요양병원 진료과장

진료분야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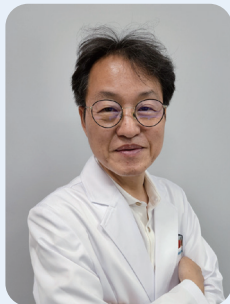


문덕홍 진료과장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춘해병원 부산대병원 신경과 전공의 수료
- 삼세한방병원부속 삼세의원 원장
- 동의대한방병원부속 동의의원 과장
- 조흔의원 원장
- 상록수요양병원 진료과장
-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과장
- 위너스자연요양병원 진료원장

진료분야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암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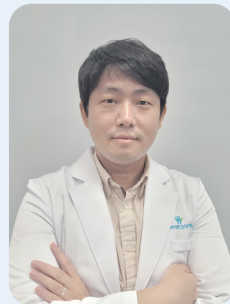


오상향 진료과장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순천향대학교 재활의학과 전공의
- 건양대학교병원 진료과장
- 홍성병원 진료과장
- 현대프라임요양병원 진료과장
- 보니파시오요양병원 진료과장
- 백세요양병원 진료과장
- 워크런병원 진료과장

진료분야

뇌졸중 재활, 근골격 통증치료(척추 및
어깨관절, 무릎관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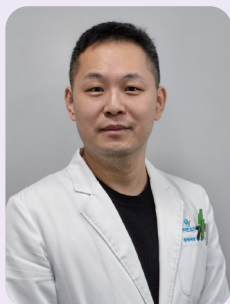


안용욱 한방과장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전주 평화한의원 진료원장
- 해남군 삼산보건지소 한방과장
- 부산 해양요양병원 한방과장
- 부산 청십자요양병원 한방과장

진료분야

침구과, 한방 내과·한방 재활의학과
근골격계 통증치료



양정훈 한방과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세양요양병원 한방과장
- 논산시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분야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 내과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김은곤 한방과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여주 시애노요양병원 한방과장
- 강원원주 민중병원 한방과장
- 천안아산 녹십자요양병원 한방원장
- 용인 성북한의원 대표원장
- 서울 김운곤한의원 대표원장
- 서울 성원당한의원 대표원장

진료분야

침구과, 한방 내과, 한방 재활의학과
노인허리 수술 후 허약, 한방 부인과

요양병원 입원대상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이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자

종류		치료대상	치료 및 프로그램	
노인 요양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 어르신 만성기 질환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적 진료 및 치료 체계적인 식단 관리 전문재활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 	
	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추신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파킨슨병 근골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계 손상 신경마비 환자 수술 후 재활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졸중 재활치료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성인운동치료 성인작업치료 도수치료 통증치료 	
항 암	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 수술 전 체력관리 암 수술 후 회복관리 항암/방사선 병행관리 일상회복 후 지속적 관리 재발/전이방지 말기 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산소 치료 암 면역 치료 	주 2~3회 정기적 치료
	입원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 암 면역 치료 암 식이관리 	2박 3일 내외
	입원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 암 면역 치료 암 식이관리 힐링 프로그램 	1달 이상 입원
투 석	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기 신부전증 환자 부종이 심하거나 요독 증세가 심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혈액 투석 치료 → 약 2시간부터 시작 이후 상태에 따라 증가함 보통 1회 4시간, 주 3회 시행 	월/수/금 화/목/토 투석 실시
	입원			

* 온코써미아(고주파온열치료기)는 국내외 주요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로 경북 최초 2대 보유 요양병원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대표전화 054 - 241 - 1011
 홈페이지 www.goryomcc.com
 블로그 blog.naver.com/goryomcc

고려대련요양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외래	의사	진료분야	진료요일	
			오전	오후
재활의학과	오상향	뇌졸중 재활, 근골격 통증치료(척추 및 어깨관절, 무릎관절)	월~토	월~금
암케어	문덕홍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암재활치료	월~금	월~금
내과(신장내과)	임종우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류마티스 내과	월~금	월~금
한방과	양정훈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내과	월~금	월~금
	안용욱			

• 재활의학과 토요일 진료는 격주로 진행되오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격]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 판정 어르신
 • 치매, 뇌졸중,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이용절차]
 전화 혹은 방문상담 이후 입소 확정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대표전화 054 - 262 - 2022
 홈페이지 www.goryoseniorcare.com